

종교교육학연구 제47권. pp.137-159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2. 28.

종교성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반추, 적극적 대처,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 기독교를 중심으로 —

53)54)

최 정 윤 · 이 희 경**

가톨릭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종교성향이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반추, 적극적 대처, 삶의 의미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대구 소재 기독교 신자 가운데 외상을 경험하고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고한 575명을 대상으로 종교성향, 반추, 적극적 대처, 삶의 의미, 외상 후 질문지, 외상 후 성장 척도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종교성향이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그 경로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재적 종교성향이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반추와 삶의 의미의 순차적인 이중매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내재적 종교성향이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대처방식과 삶의 의미의 순차적인 이중매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의 의의와 제한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핵심주제어: 종교성향, 반추, 적극적 대처, 삶의 의미, 외상 후 성장

* 본 원고는 최정윤(2014)의 석사학위논문(지도교수 이희경)을 일부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이희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Tel: 02-2164-4296, E-mail: ahalee@catholic.ac.kr

I. 서론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 스트레스는 유형과 강도에 따라 일상적이고 경미한 수준에서부터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스트레스의 노출 정도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일상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심적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심할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가 나타나기도 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을 겪은 후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며 진정한 성장을 경험하기도 한다. 외상 후 성장(Post Traumatic Growth: PTG)이란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을 겪은 후, 이를 잘 극복함으로써 이전 기능 수준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말한다. 외상 후 성장이 가져오는 변화 영역은 인생관의 변화와 삶에 대한 감사, 긍정적인 자기 지각의 증가, 대인관계의 변화와 영적인 변화가 있다.¹⁾

지금까지 외상 관련 연구와 치료들은 외상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부정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고통을 제거하고 회피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 긍정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중점을 두던 것에서 벗어나 외상 이전보다 더 나은 기능을 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긍정적 변화를 일으켜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 주목하기 시작했다.²⁾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외상에 노출될 확률이 약 80%에 이른다는 보고를 볼 때,³⁾ 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는 성장과정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종교는 외상 후 성장을 예견하는데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및 종교성의 습득 정도와 성장과의 관련성에서 모든 지표들이 외상 후 성장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⁴⁾ 국내의 종교와 외상 후 성

1) Tedeschi, R. G., & Calhoun, L. G.,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 1996, pp. 455-471.

2) Calhoun, L. G., & Tedeschi, R. G., "Positive aspects of critical life problem: Recollection of grief", *Omega*, 20(4), 1990, pp.265-272; Joseph, S., Williams, R., & Yule, W., "Change in outlook following disaster: The preliminary development of a measure to assess positive and negative respons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6, 1993, pp.271-279; Taylor, S. E. et al., "Optimism, coping, psychological distress, and high-risk sexual behavior among men at risk for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AD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1992, pp.460-473.

3) 은현정, 이선미, 김태형, 「일 도시 지역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역학 조사」『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40(4) (서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1), 584-585쪽.

4) Calhoun, L. G., Cann, A., Tedeschi, R. G., & Mcmillan, J., "A correlational tes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growth, religion, and cognitive processing",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3, 2000, pp.521-527; Park, C. L., Cohen, L. H., & Murch, R. L.,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stress-related growth", *Journal of Personality*, 64(1), 1996, pp.71-105; Tedeschi, R. G., Park, C., & Calhoun, L. C., 앞의 글, pp.455-471.

장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종교적 대처가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가 중요하고,⁵⁾ 외상 후 성장이 종교적 대처와 관련이 있다⁶⁾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종교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경로를 밝히지는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종교성향을 상정하였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지 그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종교는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이해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준거체계로 작용한다.⁷⁾ 파거먼트 등(Pargament et al.)⁸⁾은 종교가 스트레스와 외상사건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신념과 목적을 제공하기 때문에 역경에 대한 대처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질문하였을 때, 종교적 신념이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다.⁹⁾ 올포트와 로스(Allport & Ross)¹⁰⁾는 종교에 대한 동기에 따라 외재적 종교성향과 내재적 종교성향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외재적 종교성향은 외적으로 동기화되어 안전이나 보호의 필요성으로, 이기적이고 방어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종교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특성이 있고, 내재적 종교성향은 종교가 삶의 목적이자, 종교를 참된 삶의 추진력으로 삼아 성숙되고 건강한 사고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내재적인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때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외재적인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미루는 경향이 나타났다.¹¹⁾ 이와 더불어 종교성향이 심리적 안녕감 및 성숙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외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은 심리적으로 미성숙하거나 부적응을 많이 나타내지만,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은 외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보다 심리적으로 더욱 성숙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¹²⁾ 또한 내재적 종교성향은 불안과 유의미한 부정 상관을 보이며,¹³⁾ 외재적

5) 이정호, 이희경, 「종교적 대처방식과 삶의 의미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종교교육학연구』36 (의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171-192쪽.

6) 지혜경, 「중년의 외상 후 성장 경험과 종교적 대처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53-54쪽.

7) Spilka, B., Shaver, P., & Kirkpatrick, L., "A general attribution theory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4, 1985, pp.1-20.

8) Pargament, K. I., Kennell, L., Hathaway, W., Grevengoed, N., Newman, J., & Jones, W., "Religion and the problem-solving process: Three styles of coping", *Journal of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7, 1988, pp.90-104.

9) Pargament, K. I., Koenig, H. G., & Perez, L. M., "The many methods of religious coping: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RCOP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 2000, pp.519-543.

10) Allport, G. W., & Ross, J. W.,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1967, pp.432-443.

11) Pargament, K. I., Kennell, L., Hathaway, W., Grevengoed, N., Newman, J., & Jones, W., 위의 글, pp.90-104.

12) Allport, G. W., & Ross, J. W., 위의 글, pp.432-443.

종교성향은 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¹⁴⁾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단순히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어떠한 종교적 태도(종교성향)를 지니고 있느냐가 대처와 심리적 안녕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현장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외상을 겪었을 때,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요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종교성향은 일종의 종교에 대한 동기이기 때문에 상담에서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종교성향과 같은 변인에 개입의 초점을 두기보다는 종교성향과 외상 후 성장의 경로를 탐색하고, 그 변인들(매개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상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과 자신·타인에 대한 신념이 붕괴되므로 이를 재건하기 위해 외상의 이유를 찾고, 삶의 의미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¹⁵⁾ 이러한 과정을 이현수¹⁶⁾는 ‘인과적 귀인과정’이라 하였는데, 본 연구도 여기에 주목하고 ‘삶의 의미’를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종교성향과 삶의 의미 사이에 대처방식의 차별적 특성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상 후 성장의 과정을 보다 세부적으로 이해하고 상담 장면에서 어떤 요인을 고려하여 개입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적극적 대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하나로, 스트레스원이나 문제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관리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나 행동에 중점을 두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처방식을 말한다.¹⁷⁾ 래저러스와 포크먼(Lazarus & Folkman)¹⁸⁾은 대처란 개인과 환경 간의 지속적인 상호 과정으로서 인지적 평가와 행동의 영향을 받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개인이 취하는 대처행동을 크게 문제 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로 나누었다. 문제 중심 대처는 적극적 노력을 통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고, 정서중심 대처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문제나 상황을 회피·부정·감정적 대응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고통을 감소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하는지가 적응적 결과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국내 여러 연구들은 적극적 대처 전략이 외상 후 성장이나 심리적 안녕에 바탕이 되는 유의미한 예측 변인임을 입증하고 있다.¹⁹⁾

13) 김진원, 「종교와 삶의 의미수준, 불안과의 관계」(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5), 38-42쪽.

14) 김은정, 「청소년의 종교성향과 영적 안녕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39쪽.

15) Taylor, S. E., "Adjustment to threatening events: A theory of cognitive adaption", *American Psychologist*, 38, 1983, pp.1161-1173.

16) 이현수, 『역경 속의 성장』(서울: 학지사, 2009), 135쪽.

17) 김정화·이장호,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1(1) (서울: 한국심리학회, 1988), 25-45쪽.

18) Lazarus, R. S., &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김정희,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처』(서울: 대광문화사, 2001).

종교성향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대처방식이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재적 종교성향은 긍정적인 종교적 대처방식과는 정적 상관을,²⁰⁾ 부정적인 종교적 대처방식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외재적 종교성향은 부정적인 종교적 대처방식과는 정적 상관을, 긍정적인 대처방식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질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며 심리적 적응에 정적 상관을 가졌고, 외재적 종교성향을 가질수록 소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로 인해 심리적인 적응에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²¹⁾ 또한 외상경험 이후 적극적인 대처를 많이 할수록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²⁾ 이러한 결과는 종교성향과 외상 후 성장 사이에 대처방식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종교적 대처 방식을(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종교적 차원에서 용서를 베푸는 것)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종교적 대처 방식(하느님이나 교회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회의를 표시)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낮은 가치를 버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인생에 있어 새로운 근원을 찾도록 고무한다.²³⁾ 긍정적인 종교적 대처가 내재적 종교성향과 삶의 의미 사이를 부분매개 한다는 선행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²⁴⁾ 요컨대, 종교성향에 따라 외상에 대한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경로가 다를 수 있다.

한편, ‘반추’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부정적인 정서나 증상에 계속 초점을 맞추는 일종의 정서 중심 대처²⁵⁾이다. 외상 사건은 개인의 목표와 신념 등 몇 가지 핵심적 요소들을 뒤흔들거나 붕괴시킨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도식이 붕괴되면 개인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외상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19) 송현·이영순, 「심리적 강인성과 정서지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4) (서울: 한국상담학회, 2011), 1231-1246쪽; 김고은,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삶의 의미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35-36쪽.

20) Pargament, K. I., Steele, R. E., & Tyler, F. B., “Religious participation, religious motivation and individual psychosocial competence”, *Journal of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8, 1979, pp.412-419; 최명심, 「내재적 종교성향과 삶의 의미에서 종교적 대처의 매개역할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서울: 한국심리학회, 2010), 91-105쪽.

21) 허찬, 「종교성향,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및 심리적 적응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41-42쪽.

22) Bellizzi, K. M., & Blank, T. O., “Predicting posttraumatic growth in breast cancer survivors”, *Health Psychology*, 25(1), 2006, pp.47-56; 송현·이영순, 앞의 글, 1231-1246쪽.

23) Thombre, A., Sherman, A. C., & Simonton, S., “Religious coping and posttraumatic growth among family caregivers of cancer patients in India”, *Journal of Psychosocial Oncology*, 28(2), 2010, pp. 173-188.

24) 송현·이영순, 앞의 글, 1231-1246쪽.

25) Matthews, G., & Wells, A., “Attention, automaticity, and affective disorder”, *Behavior Modification*, 24(1), 2000, pp.69-93.

다루고 이해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반추하게 된다. 초기의 반추는 사건 직후 자동적으로 따라와 반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반추과정은 외상 이전의 도식을 재건하려는 첫 시도이다. 이와 같이 초기 대처에 성공하게 되면(예를 들어, 불가능한 목표 단념, 지지될 수 없는 신념에서의 자유 등), 반추는 외상과 그것이 인생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의미를 발견하고 재평가하는 인지과정이 구축되어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심 역할을 한다.²⁶⁾ 반면, 초기 반추가 지나칠수록 부정적 기억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해결책의 발견이 어렵고, 우울 증상이 유지되며,²⁷⁾ 외상 후 성장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²⁸⁾

‘삶의 의미’는 프랭클(Frankl)²⁹⁾의 의미치료의 핵심개념으로, 인간의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동기로 정의된다. 테일러(Taylor)³⁰⁾는 ‘인간이 불행을 어떻게 극복해 내는가?’라는 연구에서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고통에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개인은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극복하기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사건을 겪기 전이나 사건을 겪은 때보다 나은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신이 왜 불행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또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그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을 인과적 귀인 과정이라고 한다.³¹⁾ 실제 스트레스나 위기 사건 이후에 새롭게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고,³²⁾ 삶의 의미가 클수록 개인의 적응과 정신건강, 안녕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³³⁾ 또한 데이비스(Davis)³⁴⁾는 부정적인 사

26) 이양자·정남운, 「외상후 성장에 대한 연구 개관: 적응과의 관계 및 치료적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13(1) (서울: 한국심리학회, 2008), 1-23쪽.

27) Nolen-Hoeksema, S., “Response to depression and their effects on the duration of depressive episod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1991, pp.569-582; Nolen-Hoeksema, S., Parker, L. E., & Larson, J., “Ruminative coping with depressed mood following lo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994, pp.92-104; 박혜원·오경자, 「대학생의 내부초점적 반응 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6(1) (서울: 한국심리학회, 2009), 19-30쪽.

28) Cann, A., Calhoun, L. G., Tedeschi, R. G., Solomon, D. T., “Posttraumatic growth and depreciation and independent experiences and predictor of well-being”, *Journal of Loss and Trauma*, 15, 2010, pp.151-166; Stockton, H., Hunt, N., & Joseph, S., “Cognitive processing, rumina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4(1), 2011, pp.85-92; 박경, 「외상경험 대학생들의 반추 양식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외상후 성장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치료학회지』4(2) (서울: 한국심리치료학회, 2012), 51-64쪽.

29) Frankl, V. E.,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63).

30) Taylor, S. E., 앞의 글, pp.1161-1173.

31) 이현수, 앞의 글, 135쪽.

32) Park, C. L., & Ai, A. L., “Meaning making and growth: New directions for research on survivors of trauma”, *Journal of Loss and Trauma*, 11, 2006, pp.389-407; Park, C. L. & Folkman, S., “Meaning in the context of stress and coping”,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 1997, pp.115-144.

33) Ryff, C. D.,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989, pp.1069-1081.

건 이후 의미를 찾는 것은 건강한 기능으로 돌아오도록 촉진하는 강력한 대처기술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나 외상경험 후 성장을 다룬 연구에서도 나타난다.³⁵⁾ 이는 사람들이 불행을 겪었을 때, 고통이 의미의 요소들을 자극하여 또 다른 삶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내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외상 사건의 피해자를 돕는 심리치료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삶의 의미를 복구하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상 사건에 의해 잃어버린 삶의 방향성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뿐만 아니라, 외상 이전의 삶보다 인생의 깊이를 더해주고 보다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종교성향과 삶의 의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학생이 외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학생보다 삶의 목적검사(PIL : Purpose In Life Test)에서 유의하게 높았고,³⁶⁾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더 많이 발견하고, 심리적 안녕감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⁷⁾ 이는 종교적 태도(종교성향)가 삶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종교성향과 외상 후 성장 간의 대처방식(반추, 적극적 대처)과 삶의 의미의 경로를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종교와 관련된 모든 지표들이 외상 후 성장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고,³⁸⁾ 종교성향에 따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며,³⁹⁾ 삶의 의미가 클수록 개인의 적응과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⁴⁰⁾ 볼 때, 부정적 사건 이후 의미를 찾는 것은 종교성향이 건강한 기능으로 돌아오도록 촉진하는 강력한 대처기술로 보인다.⁴¹⁾ 이때 종교성향은 대처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종교성향과 대처방식에 따라 심리적 안녕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므로,⁴²⁾ 이를 근거로 종교성향과 삶의 의미 사이에 어떤 대처방식(반추와 적극적 대

34) Davis, C. G., Wortman, C. B., Lehman, D. R., & Silver, R. C., "Searching for meaning in loss: Are clinical assumptions correct?" *Death Studies*, 24, 2000, pp. 497-540.

35) Park, C. L., Cohen, L. H., & Murch, R. L., 앞의 글, pp.71-105; 신선영·정남운, 「삶의 의미와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성장적 반추를 매개 변인으로」 『人間理解』 33(2) (서울: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012), 217-235쪽.

36) Bolt, M., "Purpose in life and religious orienta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 1975, pp.116-118.

37) 한재희,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에 따른 삶의 의미와 종교적 만족도」(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33쪽; 손은정·홍혜영·이은경, 「종교성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와 낙관성의 매개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서울: 한국심리학회, 2009), 465-480쪽.

38) Calhoun, L. G., Cann, A., Tedeschi, R. G., & Mcmillan, J., 앞의 글, pp.521-527; Park, C. L., Cohen, L. H., & Murch, R. L., 앞의 글, pp.71-105; Tedeschi, R. G., Park, C., & Calhoun, L. C., 위의 글, pp.455-471.

39) 한재희, 위의 글, 33쪽; 손은정·홍혜영·이은경, 위의 글, 465-480쪽.

40) Ryff, C. D., 앞의 글, pp. 1069-1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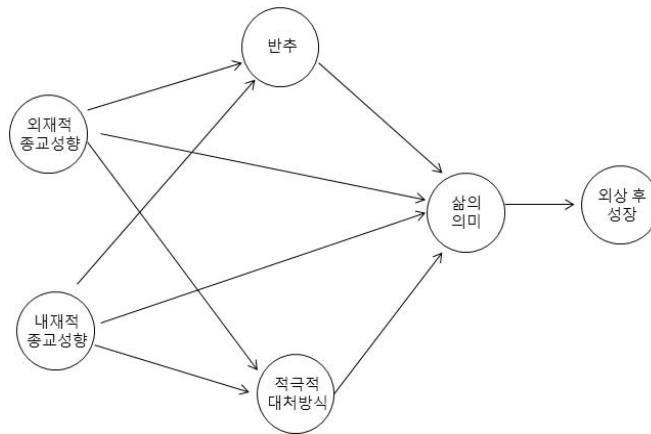
41) Davis, C. G., Wortman, C. B., Lehman, D. R., & Silver, R. C., 앞의 글, pp. 497-540.

42) Pargament, K. I., Steele, R. E., & Tyler, F. B., 앞의 글, pp.412-419; Bellizzi, K. M., & Blank, T.

처)이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에 차별적 특성이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종교성향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로 가는 과정에서 대처방식(반추와 적극적 대처)과 삶의 의미를 통한 경로가 확인된다면, 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는데 있어서 어떤 요인을 고려하여 개입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가설은 “종교성향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적극적 대처, 반추, 삶의 의미가 유의하게 매개할 것이다”이며, 가설적 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가설 모형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의 천주교회와 개신교회 신자들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외상 사건의 당시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한 외상 경험의 공통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 고통의 정도가 보통이하로 응답한 사람 25명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본 선정 결과, 총 575명이었으며, 이들 중 남자는 125명, 여자는 450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46.3세(SD=14.11)였다.

2. 측정도구

1) 종교성향

본 연구에서는 종교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올포트와 로스(Allport & Ross)⁴³⁾가 개발하고 이해령⁴⁴⁾이 사용한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 중 8문항은 내재적 종교성향을, 11문항은 외재적 종교성향을 평가하며, 1문항은 집단 구분에 사용된다. 19개 문항을 1점에서 4점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재적 종교성향의 신뢰도는 $\alpha = .75$, 내재적 종교성향의 신뢰도는 $\alpha = .82$ 이다.

2) 반추

반추는 김진영⁴⁵⁾이 제작한 반응양식 질문지(Response to Depressed mood Questionnaire; RDQ)를 사용하였다. 반응양식 척도는 우울한 기분에 대한 반응양식을 측정하기 위한 반추적 반응양식 12문항, 반성적 반응양식 10문항, 주의전환적 반응양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성적 반응양식과 주의전환적 반응양식을 제외한 반추적 반응양식의 질문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할 때 반추적 반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진영의 연구에서 반추적 반응양식의 신뢰도는 $\alpha =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alpha = .90$ 이었다.

3) 적극적 대처방식

적극적 대처 척도는 래저러스와 포크먼(Lazarus & Folkman)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토대로 하여 김정희와 이장호⁴⁶⁾가 요인분석을 거친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정희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를 적극적 대처로, 정서중심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대처를 소극적 대처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에서 적극적 대처방식인 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를 묻는 2개의 하위유형의 질문만 골라 총 27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자주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할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정

43) Allport, G. W., & Ross, J. W., 위의 글, pp.432-443.

44) 이해령, 「종교성향과 강박적 성격특성이 사고-행동 융합에 미치는 영향」(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5쪽.

45) 김진영, 「우울한 기분에 대한 두 가지 내부 초점적 반응양식: 반추적 반응양식 대 반성적 반응양식」(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8쪽.

46) 김정희·이장호, 앞의 글, 25-45쪽.

회, 이장호 연구에서는 신뢰도는 $\alpha = .83$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alpha = .91$ 이었다.

4) 삶의 의미

스테거 등 (Steger et al.)⁴⁷⁾이 개발하고, 우리나라에서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⁴⁸⁾이 번안, 타당화한 삶의 의미 척도(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를 사용하였다. 삶의 의미 척도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두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하위척도당 5문항씩 전체 10문항으로, 각 7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삶의 의미를 어느 정도 발견했는지 그 수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두 하위 요인 중 의미발견 하위유형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국내에서 타당화한 원두리 등의 연구에서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신뢰도는 모두 $\alpha = .88$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의미발견의 신뢰도는 $\alpha = .73$ 로 나타났다.

5) 외상 경험 질문지

외상 사건의 종류와 외상 경험의 주관적 고통을 측정하고, 연구대상에 해당되는 참가자를 선별하기 위해 송승훈 등⁴⁹⁾이 사용한 것을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매우 힘들고 비극적이고, 극심하게 충격적이었던 사건들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고, 그 사건을 ‘외상 사건’이라 정의한 뒤 이를 떠올리면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상을 경험한 시점에서의와 최근에 각각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7점 척도(1점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음’에서 7점 ‘매우 고통스러웠음’)로 응답하도록 했다.

6) 외상 후 성장

테데치와 칼룬⁵⁰⁾(Tedeschi & Calhoun)이 개발하고, 송승훈⁵¹⁾이 번안 타당화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를 사용하였다. 외상 후 성장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new possibilities), 대인관계 의미변화(relating to others), 개인내적 강점의 변화(personal strength), 삶에 대한 감사(appreciation of life), 영적 관심의 변화(spiritual change)등 총 5가지 하위 차원으로 나누어지며, 외상 경험 이후 어떤 긍정적인 변화의 정도를 알아보는데 유용하다. 각 문항

47)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innesota, 2004).

48) 원두리·김교현·권선중, 「한국판 삶의 의미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10(2) (서울: 한국심리학회, 2005), 211-225쪽.

49) 송승훈·이홍석·박준호,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14(1) (서울: 한국심리학회, 2009), 193-214쪽.

50) Tedeschi, R. G., & Calhoun, L. G.,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 2004, pp.1-18.

51) 송승훈, 위의 글, 193-214쪽.

은 6점 Likert 척도(1점 ‘경험 못하였다’에서 6점 ‘매우 많이 경험하였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이후 긍정적 변화를 많이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송승훈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alpha = .92$ 였고, 본 연구에서 $\alpha = .94$ 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모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구조모형을 설계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후 개별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모형검증을 위해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고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며, 해석기준이 비교적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적합도 지수로 TLI (Tucker 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TLI, CF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라고 해석하고,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라고 해석하며,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10보다 미만이면 보통 적합도, .1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지 않다고 본다.⁵²⁾ 셋째, 다수 개의 선행변인과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중다 매개효과모형으로부터 개별 매개효과를 분리하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외상사건의 유형

본 분석에 앞서 표집의 외상사건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외상경험으로 575명 중 118명(20.5%)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이 70명(12.2%), 재정적 어려움 64명(11.1%), 배신, 충격이 52명(9.0%),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52) 홍세희「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서울: 한국심리학회, 2000), 161-177쪽.

〈표 1〉 외상사건 유형별 빈도와 비율 분포

외상 사건의 유형	빈도	%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118	20.5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	70	12.2
재정적 어려움(부도, 파산, 신용불량 등)	64	11.1
배신, 충격(거짓말, 외도, 속임, 사기 등)	52	9.0
학업 과업 문제(낙방, 실패, 좌절 등)	50	8.7
대인관계 파탄(이별, 실연, 절교 등)	45	7.8
본인의 심각한 신체 질병	32	5.6
사고 및 상해(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 폭발 등)	27	4.7
실직, 구직의 어려움	22	3.8
적응의 어려움(학교, 사회, 군대에서 소외, 따돌림)	20	3.5
이혼 및 별거(본인 및 부모)	16	2.8
자연재해(홍수, 지진, 폭설 등)	7	1.2
성추행 및 성폭행	6	1.0
어린 시절의 학대	5	.9
구타, 폭행, 강도 등의 범죄 피해	4	.7
기 타	37	6.4
총 계	575	100.0

2.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

본 연구의 모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통해 추정하였기 때문에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모형에 포함된 측정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표 2). 확인 결과,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정규 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N=575$)

변인명	<i>M</i>	<i>SD</i>	왜도	첨도
종교성향				
외재적 종교성향1	2.51	.49	-.04	-.28
외재적 종교성향2	2.20	.43	.00	-.33
외재적 종교성향3	2.20	.51	.10	.40
내재적 종교성향1	2.95	.54	-.48	1.68
내재적 종교성향2	3.13	.48	-.62	1.29
반추				
반추1	2.46	1.03	.35	-.56
반추2	2.51	.93	.32	-.40
반추3	2.56	1.02	.39	-.30
반추4	2.52	.99	.49	-.25
적극적대처방식				
대처방식1	2.76	.76	-.26	-.22
대처방식2	2.65	.74	-.07	-.31
대처방식3	2.88	.73	-.17	-.22
대처방식4	2.84	.71	-.23	.03
삶의 의미				
삶의 의미1	5.06	1.21	-.58	.27
삶의 의미2	5.30	1.21	-.72	.58
삶의 의미3	5.42	1.19	-.69	.31
삶의 의미4	5.10	1.31	-.59	.12
외상 후 성장				
삶에 감사	3.20	.91	-.82	1.29
강점 발견	3.45	.90	-.80	.84
관계 향상	3.15	.99	-.75	.64
가능성 발견	3.23	.99	-.68	.49
영적 관심 변화	3.47	1.21	-1.01	.81

다음으로, 주요 변인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결과를 보면 종교 성향에 따라 심리 변인들과의 관계 양상이 다를 수 있다. 즉, 외재적 종교성향은 반추와 정적 상관을($r=.232, p<.01$), 삶의 의미와 외상 후 성장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삶의 의미: $r=-.161, r<.01$, 외상 후 성장: $r=-.104, p<.05$). 반면, 내재적 종교성향은 반추와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고($r=-.121, p<.01$), 적극적 대처방식, 삶의 의미, 그리고 외상 후 성장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적극적 대처방식: $r=.259, p<.01$, 삶의 의미: $.357, p<.01$, 외상 후 성장: $r=.390, p<.01$).

〈표 3〉 주요 연구변인간 상관관계($N=575$)

구 분	1	2	3	4	5	6
1. 외재적 종교성향	-					
2. 내재적 종교성향	-.177**	-				
3. 반추적 반응양식	-.232**	-.121**	-			
4. 적극적 대처방식	-.027	-.258**	-.046	-		
5. 삶의 의미	-.161**	-.357**	-.079	.473**	-	
6. 외상 후 성장	-.104*	-.390**	-.128**	.454**	.420**	-

주. * $p < .05$, ** $p < .01$

3. 종교성향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반추, 적극적 대처,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검증

1) 측정모형 검증

연구 모형 분석을 위해 선정된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AMOS 18.0을 통해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604.570(df=194, p < .01)$, CFI=.933, TLI=.920, RMSEA=.061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나타나,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때, 각 잠재변인별 요인적재량의 분포는 외재적 종교성향 .67~.79, 내재적 종교성향 .78~.88, 반추 .64~.81, 적극적 대처방식 .58~.73, 삶의 의미 .74~.87, 외상 후 성장 .61~.94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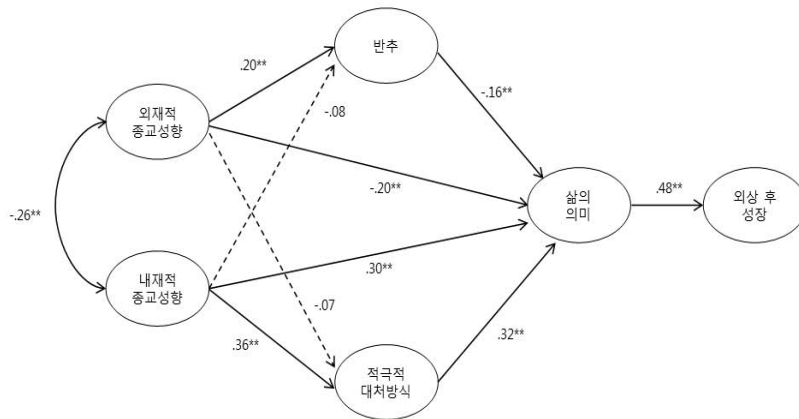
2) 구조모형 검증

종교성향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반추와 적극적 대처방식,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종교성향과 삶의 의미간의 직접경로가 있는 부분매개모형(연구모형)과 직접경로가 없는 완전매개모형(경쟁모형)을 비교함으로써,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표 4). 모형 간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종교 성향에서 삶의 의미와 외상후 성장으로 가는 직접경로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매개모형이 완전매개모형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분매개모형: $\chi^2=735.563(df=201)$, CFI=.913, TLI=.900, RMSEA=.068). 또한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모형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모형이 보다 적절한 모형임을 확인하고, 이를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표 4〉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모 형	χ^2	df	Sig.	CFI	TLI	RMSEA
1. 부분매개모형(연구모형)	735.563	201	<.001	.913	.900	.068
2. 완전매개모형(경쟁모형)	808.035	203	<.001	.901	.888	.072

주. 모형2-모형1: $\Delta \chi^2=72.472$, $\Delta df=2$, $p<.001$



〈그림 2〉 최종 모형(부분매개 모형)

주. * $p<.05$, ** $p<.01$, 모든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최종 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의 경로계수를 〈그림 2〉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을 보면, 외재적 종교성향은 반추($\beta=.20$, $p<.01$)와 삶의 의미($\beta=-.20$, $p<.01$)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즉 본 연구의 표집이 외상을 경험한 외재적 종교성향일수록 반추를 더 많이 하고, 삶의 의미를 더 적게 느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내재적 종교성향은 적극적 대처방식($\beta=.36$, $p<.01$)과 삶의 의미($\beta=.30$, $p<.01$)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외재적 종교성향과 달리 내재적 종교성향일수록 적극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삶의 의미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삶의 의미에서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는 $\beta=.48$ ($p<.01$)로 나타나, 삶의 의미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외상 후 성장의 수준이 높은 것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외재적 종교성향-적극적 대처방식’ 경로와 ‘내재적 종교성향-반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설명을 논의에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3)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마지막으로, 최종모형에서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 절

차를 사용하였다. Bootstrap은 표본 자료로부터 재표본추출(resampling)을 통해 모수의 분포를 생성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⁵³⁾ Bootstrap 절차는 비대칭적인 신뢰한계를 제공하므로, 간접효과가 정상분포를 이루어야 한다는 가정을 우회할 수가 있다. 이때 간접효과 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간접효과가 .05수준에서 유의하다고 결론을 내린다.⁵⁴⁾ 그런데 AMOS에서는 다중매개변인이 포함된 모형일 경우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토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Mplus 4.2를 사용하여 간접경로들에 대한 Bootstrap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각 경로에 대한 신뢰구간은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아 모든 간접 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경로를 살펴보면, 먼저 외재적 종교성향은 반추를 통해 삶의 의미와 유의한 관계를 맺으며, 삶의 의미를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재적 종교성향일수록 외상을 겪었을 때 반추를 더 많이 하게 되며, 이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워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반면, 내재적 종교성향은 적극적 대처방식을 통해 삶의 의미에 이르며, 이는 곧 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내재적 종교성향일수록 외상을 겪었을 때 적극적인 대처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이것이 삶의 의미를 촉진함으로써 외상 후 성장에 이를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외재적 종교성향-적극적 대처방식’ 경로와 ‘내재적 종교성향-반추’ 경로는 구조모형 검증 과정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표 5> 간접효과에 대한 Bootstrap 결과

구분	경로	추정치	Bias-corrected 95% CI	
			Lower	Upper
1	외재적 종교성향 → 반추 → 삶의 의미	-.026	-.048	-.005
2	외재적 종교성향 → 삶의 의미 → 외상 후 성장	-.030	-.051	-.008
3	내재적 종교성향 → 적극적 대처방식 → 삶의 의미	.241	.173	.308
4	내재적 종교성향 → 삶의 의미 → 외상 후 성장	.268	.197	.339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종교적 성향에 따라 외상에 대한 대처방식이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가정

53) 우종필,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서울: 한나래아카데미, 2012),

54) 서영석,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22(4) (서울: 한국심리학회, 2010), 1147-1168쪽.

하에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외재적·내재적 종교성향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 경로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두 모형 중 연구모형이 더 우수한 모형으로 채택되었으며, 연구모형을 중심으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경로와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문제에 따른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재적 종교성향은 삶의 의미를 거쳐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반추가 높아 삶의 의미가 낮아지고, 결국 외상 후 성장의 수준이 낮아졌다. 또한, 외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적극적 대처방식의 사용과 관련이 없어 삶의 의미에 이르는 경로가 제한적이었다. 이는 올포트와 로스(Allport & Ross)⁵⁵⁾가 외재적 종교성향은 외적으로 동기화되어 종교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취하기 때문에 원하던 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경우 크게 좌절하고, 부정적 사고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또한 외재적 종교성향은 부정적인 대처방식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데 반해, 긍정적인 대처방식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 외재적 종교성향을 가질수록 소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로 심리적 적응에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⁵⁶⁾

둘째, 내재적 종교성향은 삶의 의미를 거쳐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반추와 관련이 없고, 적극적 대처방식에 정적 영향이 있고 삶의 의미가 높아져, 결국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높아졌다. 이는 내재적 종교성향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한다는 연구⁵⁷⁾와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할수록 더 많은 외상 후 성장을 보고한다는 연구⁵⁸⁾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종교가 자신의 삶에 내면화되고 종교 안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며 종교적인 신념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스트레스나 위기 사건을 경험한 후에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심리적 적응과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재적 종교성향과 삶의 의미 과정에서 적극적 대처의 부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내재적 종교성향은 긍정적인 종교적 대처방식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부정적인 종교적 대처방식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질수록 스트레스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며 심리적 적응에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결과를 지지한다.⁵⁹⁾

55) Allport, G. W., & Ross, J. W., 위의 글, pp.432-443.

56) Pargament, K. I., Steele, R. E., & Tyler, F. B., 위의 글, 412-419; 최명심, 위의 글, 91-105쪽; 허찬, 위의 글, 41-42쪽.

57) 최명심, 위의 글, 91-105쪽; 한재희, 위의 글, 33쪽; 손은정·홍혜영·이은경, 위의 글, 465-480쪽.

58) 김보라, 신희천, 「자이탄력성과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22(1) (서울: 한국심리학회, 2010), 117-136쪽; 신선영·정남운, 위의 글, 217-235쪽.

59) 허찬, 위의 글, 41-42쪽.